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22~2015.6.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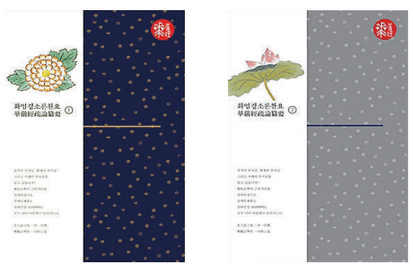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3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4	초발심자경문강설(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조계종출판사
5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8	스님의 생각(자유하라, 깨우쳐라, 행복하라)	정법안	쌤앤파커스
9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10	흘반난,밥먹기어렵다	김진태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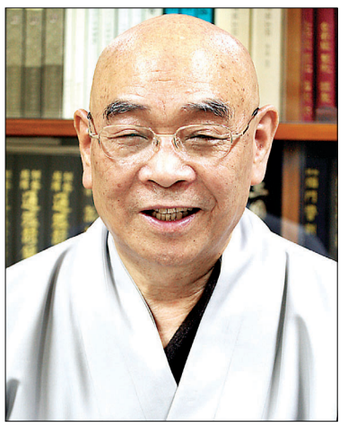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쉽게 풀어 쓴 〈화엄경〉 역경 불사 첫 발 내딛어

화엄경소론찬요 1, 2

혜거 스님 | 불광 펴냄 | 각권 3만원, 2만 5천원





탄허기념박물관 화엄각 건립 발원 계기
1년에 두 권씩, 10년 동안 총 20권 완역
〈화엄경소론찬요〉, 화엄경 최고 주석서
탄허 스님 번역본 참고해 해석 작업

"여러분은 〈화엄경〉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것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차 소리, 기차 소리, 온갖 잡소리, 새소리, 벌레 소리, 산비탈의 물소리, 우주 전체가 화엄경 아닌 것이 없습니다. (중략) 그렇게 되면 전체가 화엄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따로 들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를 따로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피할 이유가 없으며, 천당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았다고 좋아할 것이 없고, 죽는다고 서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 도리입니다." 〈탄허 강설집〉 中에서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사진〉이 입산해 처음 접한 경전은 〈화엄경〉이었다. 행자시절을 보낸 영은사는 스승인 탄허대종사께서 오대산 수도원이 해산 된 후, 이의 연장선상서 3년 결사를 선포하고 〈화엄경〉 번역이라는 대작불사를 시작해 강의한 역사의 도량이었다.

혜거 스님은 "그 당시 탄허 대종사께서는 행자인 저에게 〈화엄경〉을 청강하라 하시며 설령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들어두면 글눈이 생겨 안들은 것보다 낫다고 권하셨다"며 "이제 와 생각해 보면 행자 출가 즉시 〈화엄경〉 공부 자리에 참여한 것은 전생의 숙연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는 행운 중 행운으로 늦게나마 대종사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회고했다.

'불교 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일곱 곳(7處) 아홉 차례(9會)에 걸쳐 설해진 〈화엄경〉의 내용이 워낙 깊고 오묘한 데다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불교에 해박한 사람들도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강백 탄허(呑虛, 1913~1983) 스님이 〈화엄경〉 번역을 비롯해 중요 화엄학 관련서를 모두 집대성하고 현토역해(懸吐譯解)해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전 47권)을 간행했으니(1975년), 이는 한국 근대불교사에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번역과 출판에 무려 17년이 걸렸으며, 원고 매수 62,000장에 이르는 대작불사였다. 이 책을 계기로 스님들을 비롯해 재가불자들도 불교 경전에 쉽게 다가가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던 신행 풍토가 진리탐구의 수행 정진으로 탈바꿈 했다.

〈신화엄경합론〉이 간행된 지도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대인의 안목으로는 방대하게 집대성한 화엄경의 요체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화엄경〉의 개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더 간결하고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 필요했다. 이에 탄허 스님의 제자인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이 불교TV를 통해 〈화엄경〉 강좌를 열고, 이를 토대로 역경 대작불사 원력을 세우게 됐다.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현토(懸吐)해 완역하는 지난한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혜거 스님은 "몇해 전 범어사서 〈화엄경〉 강좌를 하시는 무비 스님께서 서울서도 한 번 〈화엄경〉 강좌를 열어보라고 권할때만 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 화엄각 건립 불사 발원의 인연공덕으로 〈화엄경〉 강좌를 열면서 대작불사의 원력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혜거 스님이 완역을 대본으로 삼은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책으로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했다. 청량소초는 철저한 장구(章句)의 분석으로 본말을 지극히 밝혀주었고, 통현론은 부처님 논지를 널리 논변해 자심(自心)으로 회귀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청량소초와 통현론은 〈화엄경〉을 상세히 해석한 양대 명저(名著)이다. 〈화엄경소론찬요〉는 이 방대한 해석을 보다 쉽고 간명히 축약해 동시에 풀어주고 있어, 〈화엄경〉 묘체(妙諦)를 밝혀주는 오늘날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이다. 혜거 스님은 〈화엄경소론찬요〉에 다시 탄허 스님 번역을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로 편저한 것이 특징이다. 혜거 스님의 번역은 군더더기 없는 직역을 특징으로 한다. 번역 당시의 유행한 문체로 번역하면, 이삼십년의 세월만 지나도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간행하게 된 〈화엄경소론찬요〉 1·2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에 해당하며,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 1권부터 제 11권까지의 분량이다. 〈세주묘엄품〉은 〈화엄경〉 전체의 서론이자 총론에 해당하며, 법회에 모여든 인물들을 통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탄허 스님이 번역에 몰두해 문체를 통일하고 교정하는 데만 꼬박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거 스님은 "내년 상반기에도 완역된 새 책이 나올 예정이며, 앞으로 1년에 두 권씩, 10년 동안 총 20권 분량으로 완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의 세계는 중중무진(重重無盡) 연기의 세계이며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화엄경〉 속에 펼쳐져 있다. 탄허 스님의 말씀처럼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어왔지만,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으로 인해 〈화엄경〉에 다가갈 엄두를 못 냈다면, 〈화엄경소론찬요〉 일독을 권한다. 비로소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혜거 스님**은?
1959년 삼척 영은사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김제 흥복사 등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했고, 〈한암대종사문집〉과 〈탄허대화상문집〉 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제 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현재는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대원정사 회주,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등을 맡고 있다.

엄마의 부정적 말은 아이를 아프게 한다

내 아이가 듣고 싶은 엄마의 말〉

민병직 지음 | 더난출판 펴냄 | 1만 4천원



아이가 잘못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힘 들고 속상한 것이 엄마들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혼나고 야단맞는 아이들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다음의 일기처럼 말이다. 나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분이 좋냐면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그럴 때 나의 기분은 화사해진다. 나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가 기분이 싫으냐면 "필요 없어" "조용히 해!"이다. 그때의 나의 기분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고, 집을 나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

실제로 저자가 담임을 맡은 한 2학년 아이도 집을 나가 엄마 속을 태운 일이 있는데, 나중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엄마는 잦은 훈계와 설교로 아이를 다그쳤다고 한다.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도 모자람 없이 주었음에도 아이에겐 엄마의 부정적인 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다.

공감 언어는 아이의 마음 움직인다

많은 엄마들은 아이가 변화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낸다. 그러나 감정이 실린 비난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 쉽다. 아이 또한 다음과 같이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 "이게 얼마짜리인데 화병을 깨?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아이 "내가 일부러 깼나요?"
엄마 "그럼 네가 잘했다는 얘기니?"
아이 "내가 언제 잘했다고 그랬어요?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이 녀석이 꼬박꼬박 말대답이네.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아이 "닮긴 누굴 닮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럴 땐 "장난을 치다 화병을 깼구나. 새로 사려니 신경이 쓰인다"처럼 평가나 명령, 비난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분명히 알아듣고 행동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아이의 말문을 열려면 엄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아이의 감정 표현을 이끌어내는 '공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정말?"처럼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대화를 잘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로 대화를 유도하다 보면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엄마 언어 습관 바뀌면 아이 창의성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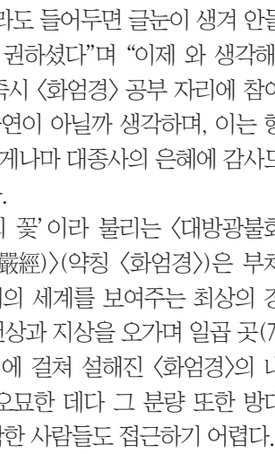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현명한 엄마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질문이다.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왜?" 같은 열린 질문은 아이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단편적인 지식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아이의 호기심을 키워줌으로써 학습 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대답이 늦더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다. 도중에 답을 말해주거나 참견을 하면 아이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아이들, 또 엄마들과의 상담 사례와 다양한 에피소드, 아이들의 일기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엄마들에게 필요한 언어 습관을 소개한다. 두뇌를 계발하고, 재능을 이끌어내고, 도덕성과 책임감을 키우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등 아이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역별 대화법 또한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풀검은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라"고 말했다. 엄마가 변화할 때 비로소 아이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져온 말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이 책은 엄마의 말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아이를 밝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아이의 재능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민병직 선생**은?
청주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3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경기도 삼가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향후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행복제작연구소'를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저서로는 〈머리를 물들여본 아이가 성공한다〉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주니어 라이브러리 '문학'〉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 등이 있다.

경허선사의 사상과 선풍을 만나다!



경허선사의 출생년, 법제자, 법맥 등을 바로 정리!
선사가 남긴 글들을 총망라하여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물론, 740여 개의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鏡虛禪師語錄
경허선사어록

기존 어록집들을 비교 정리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경허선사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은 첨부하여 철저히 자료에 근거한 어록집으로 새롭게 엮었다.

무이 거부 역 / 신국판 양장 / 544쪽 / 값 27,000원 / 무이정사

광대한 불법의 바다를 안내하는 나침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스님은 뭐하는 분이고, 절은 어떤 곳일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처음 만나는 불교 1~3



박이오 저
국판변형 케이스
전3권 / 값 29,000원

1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2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3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